



## 형태 초점 활동에 기반한 제 2언어 학습자의 영어 과수동화 오류 감소 효과 연구\*

천은정\*\*  
동국대학교  
신정아  
동국대학교

### ARTICLE INFO

Received 28 June 2018  
Revised 24 July 2018  
Accepted 17 August 2018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Tertiary

### KEYWORD

overpassivization errors/  
form-focused activities/  
input enhancement/  
written corrective input/  
과수동화 오류/형태초점 활동/  
입력 강화/문어 수정된 입력

### ABSTRACT

Cheon, Eun Jeong & Shin, Jeong-Ah.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form-focused activities on lessening Korean learners' English overpassivisation errors. *Modern English Education*, 19(3), 57-67.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Korean Second Language (L2) learners' overpassivisation errors can be remedied by form-focused activities (input enhancement and written corrective input).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llotted to one of three groups: input enhancement, written corrective input, and control group. All of them carried out a grammaticality judgement task for pretest, one of treatment and reading comprehension tasks (one group for input enhancement, another group for written corrective input, and the other group without any treatment), and a grammaticality judgement task for post-tes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two experimental groups (the input enhancement and the written corrective input group) were able to correctly judge the passive form more than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L2 learners could apply the correct rule to the new intransitive verbs, and it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the post-test scores between both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he control grou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m, this study showed that the use of input enhancement and written corrected input activities has positive effects on Korean learners' correct use of passive structures but did not show their generalization to novel items.

### I. 서론

제 2언어 습득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자동사를 수동태 구문으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M. K. Ju, 2000; J. H. Lee, 2010; Montrul, 1997; Oshita, 1997; Zobl, 1989). 이러한 과수동화(overpassivization) 오류는 타동사의 수동 규칙을 자동사에도 적용하여 범한 오류이다. 제 2언어 학습자가 문법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정확한 언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언어 사용

을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주어진 상황 또는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언어 형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어의 유창성(flucy)뿐만 아니라 정확성(accuracy)을 갖춘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정확한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Larsen-Freeman, 2003).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확성도 신경 쓸 수 있도록, 본 논문은 한국인 성인 학습자의 과수동화 오류를 확인하고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와 수정된 입력(written corrective input) 활동을 기반으로 의미 중심의 형태초점 활동(form-focused activities)이 과수동화 오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제1저자: 천은정, 교신저자: 신정아

천은정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 2260-3167 / Email: mypower104@naver.com

신정아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 2260-3167 / Email: jashin@dongguk.edu

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제 집단과 수정된 입력 활동지(written corrective input)를 제공한 집단, 굵은 글씨(boldfacing)로 입력 자료를 조작한 텍스트 강화 활동지를 제공한 실험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과수동화 오류가 형태초점 활동(입력 강화와 수정된 입력 활동)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는가?
- 2) 과수동화 오류가 형태초점 활동의 영향으로 올바른 문법 규칙으로 일반화 될 수 있는가?

## II. 선행연구

### 1. 제 2언어 학습자들의 과수동화 오류

전통적으로 과수동화 오류는 충분한 입력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오류 수정과 통사적 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 형태소 전이, 통사적, 의미적, 형태적, 인지적인 요소들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J. A. Shin, 2011). 우선, 과수동화 오류의 원인으로 한국 성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피동 형태소(passive morpheme)의 간섭 요인을 꼽는다. H. S. Eom(2015)에 따르면 한국어는 사역 교체할 경우 동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소가 존재하는데, 영어의 '가다(go)'-'보내다(send)'와 같이 서로 다른 동사의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며, '불다(blow)'-'부다(blow)'처럼 형태가 같은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이는 자동사 어간에 피동형태소(-이-, -히-, -리-, -기-)를 붙여 타동사(causative pattern)를 만들기도 하고 타동사 어간에 피동형태소를 붙여 자동사(anticausative pattern)를 만들기도 한다. 이에 대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a. 요리사가 버터를 녹였다.  
The cook melted the butter.
- b. 버터가 녹았다.  
The butter melted.
- (2) a. 도둑이 창문을 깼다.  
The thief broke the window.
- b. 창문이 깨졌다.  
The window broke.

(1a, 2a)의 타동사는 '녹였다'와 '깼다'로 피동형태소와 함께 의미를 형성했다. (1)과 같이 사역(causative)패턴을 보이는 다른 동사로 '얼다(freeze)'-'얼리다(freeze)', '가라앉다(sink)'-'가라앉히다(sink)', '마르다(dry)'-'말리다(dry)' 등이

있다. 또한 (2)와 같이 반 사역(anticausative)패턴을 보이는 동사로는 '닫다(close)'-'닫히다(close)', '열다(open)'-'열리다(open)', '바꾸다(change)'-'바뀌다(change)' 등이 있다(H. S. Eom, 2015). 영어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간에 형태소의 변화가 없으나, 한국에서는 특히 반 사역 구문일 경우 자동사로 표현되는 비대격을 번역할 때 피동형태소가 붙게 됨을 알 수 있다.

- (3) a. 비대격 영어: The window broke.
- b. 한국어: Changmun-i ccay-ci-ess-ta(창문이 깨졌다).  
(G. No & T. Chung, 2006, p. 25)

(3a)에서 영어의 자동사인 'broke'를 (2b)와 같이 한국어로 해석하면 '깨졌다'가 되어 피동형태소가 붙는다. 영어의 형태는 능동이고 의미는 수동인 중간태(middle voice)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 시 피동형태소를 붙여야 정확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영어는 비대격에 형태소 표지를 하지 않으나 수동태 문형에서 'be + Ven/Ved'로 형태소의 변화가 있는 반면, 한국어는 (3)과 같이 비대격과 수동태의 형태소 표지가 '-ci(-지)'로 동일하다.

과수동화 오류의 통사적 요인으로, 제 2언어 학습자들은 영어 동사 습득 시 동사 뒤 명사(구)가 주어로 이동한다는 어휘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지만(Zobl, 1989), 동사 뒤의 명사(구)가 주어로 이동한다는 규칙은 수동태에도 적용하기에 학습자들은 이러한 두 규칙을 혼동하게 되어 비대격 동사의 과수동화 오류를 범한다고 하였다(J. H. Kim, 2016).

- (4) a. [[ V NP ] ] (i. e., [ \_\_\_ [ open the door ] ])
- b. The door opened.
- c. \* My mother was died when I was just a baby.  
(Zobl, 1989, p. 217)

(4a)에서 교체 동사인 'open'의 명사구 'the door'이 문법적 주어 자리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4b)와 같은 문장이 되었다. 이는 명사구인 'the door'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어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4c)는 제 2언어 영어 학습자들이 비교체 동사 'die'를 교체동사 'open'과 같이 동일한 동사로 인식하여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는 어휘 규칙과 수동태의 규칙을 혼동하여 과수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과수동화 오류의 의미적, 인지적 요인으로, Croft(1995)에 따르면 주어의 자리에 어휘가 유생성(animacy)부터 추상성 순으로 갈수록 과수동화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J. H. Kim, 2016). 문법적 주어 위치에 행위자 의미가 있는 생물 명사보다는 행위자 의미가 없는 무생물 명사가 위치할 경우에 더 잦은 과수동화 현상이 보인다고 한다. J. E. Kim과 H. S. Kim (2013)에 따르면 주어의 의

미적 속성이 생물성일 경우보다 무생물성일 경우에 수동화의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생물 주어와 수동태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한국인 학습자들도 대상자가 주어로 실현되는 특이성으로 비대격 동사의 습득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행위자 의미가 없는 무생물 주어로 인한 과수동화 현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5) a. \*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of my life was happened 15 years ago.  
(Arabic L2 learners)
- b. \*First, the change of life -style will be happened.  
(Korea L2 learners)
- c. \*Two or three days ago, the important trouble was happened.  
(Japanese L2 learners)  
(J. E. Kim & H. S. Kim, 2013, p. 188)

(5)를 살펴보면 아랍인 영어 학습자들은 무생물 주어로 인하여 자동사인 ‘happen’을 수동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이 무생물 주어로 인하여 비대격 동사를 수동화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무생물 주어가 수동태 구문에서 빈번히 사용됨을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M. K. Ju, 2000).

과수동화 오류의 형태적 요인으로, Mortazavi(2012)은 제 2언어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의 언어적 직관이 없으므로 비대격 동사 과수동화 현상의 요인을 통사적 및 의미적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과수동화 현상의 요인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동사의 형태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비대격 동사는 과거와 과거 분사의 형태가 일치하는 규칙 동사가 있으며, 과거와 과거 분사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은 불규칙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제 2언어 학습자들은 불규칙 동사보다 규칙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 수동화 현상을 빈번히 적용하여, 그 결과 과수동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칙 동사가 현재시제보다 과거 시제와 완료 시제에 과수동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J. H. Kim, 2016).

- (6) a. \*The soldier was died before they could take him to the hospital.
- b. \*All the flowers in the garden have been died due to excessive beat.  
(Mortazavi, 2012, p. 38)

문장 (6)을 활용한 Mortazavi 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와 과거 분사의 형태가 다른 불규칙 동사 ‘come’이 사용된 경우보다 규칙동사인 ‘die’가 사용될 경우 과수동화 오류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불규칙 동사보다 규칙 동사에 과수동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영어 비대격 동사간의 과수동화 현상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비대격 동사의 분류보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학습하는 자동사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빈번히 학습하는 자동사를 활용하여 모든 주어 자리에 유생성(animacy)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음에도 과수동화의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형태초점 활동으로 오류를 감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형태초점 교수와 입력 강화

Brown과 H. Lee(2014)에 따르면 의미 중심 형태초점 교수란 학습자들이 언어적 형태에 집중하도록 의도된 계획이나 암시적인 교수적 활동을 일컫는다. 언어 습득을 위한 교수 접근법 중 Long과 Robinson(1998)은 언어 교수를 의미 중심(focus on meaning)과 형태초점(focus on form), 형식초점(focus on forms),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Long(1998)은 의미 중심 형태초점 교수를 제안하여 의미에 초점을 둔 수업 목표를 통해 교수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입력 자료를 제공하여 습득하기 어려운 형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음으로써 성공적인 언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형태초점 교수 방법은 현재 의사소통 접근법에 가장 부합되는 문법 지도 접근법으로, 의미에 우선 초점을 둔 뒤 정확성에 초점을 두게 된다.

하지만 형태초점 교수 방법은 언어의 의미와 정확성 모두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언어의 의미와 의사 소통에 초점을 둔 접근법(meaning-based approach)과 정확성에만 초점을 둔 문법 지도 접근법(focus on forms approach)의 문법 지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유창성보다 정확성에 초점을 둔 전통 교수법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과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과 다르게, 현재 지향하는 문법 교육은 과거의 문법 지도의 탈 맥락화(decontextualization)된 문법 학습은 지양하고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언어사용의 목적인 기능(function)을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Long과 Robinson(1998)에 따르면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에서 학습의 의미 혹은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수업 활동으로 언어적 요소를 통해 학습자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즉, 주목하기(noticing)로 언어의 요소에 대한 고차원적인 지식과 기능, 의미를 완벽히 이해할 필요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작업을 유도하는 것이다(Schmidt, 1993).

형태초점 교수 방법에서 사용하는 활동 중 하나로, 목표 언어 자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작하는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가 있다(S. Y. Hwang, 2005). Brown과 H.

Lee(2014)에 따르면, 읽기 자료에 특정한 문법적 목표 구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기와 색을 달리하거나 굵은 글씨체로 표현하여 학습자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입력 강화라고 한다. 입력 강화 활동을 한다면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특정 구문이나 형태에 주의를 집중할 것이고 목표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는 중간언어 체계(inter-language system)로 인해 목표 구문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여기서 중간언어 체계란 학습자가 제 2언어를 학습하는 과정 중에 모국어와 목표어의 중간 상태에 있는 불완전한 언어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 한국인 학습자는 수동화의 규칙을 문맥 속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뒤, 의미적 맥락을 통해 올바른 형태의 문법적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력강화 활동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입력 강화의 유형은 명시적인 방법과 암시적인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명시적인 방법은 목표 언어 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교수하거나 학습할 목표 언어를 메타 언어로 기술하는 방식이다. 반면, 암시적인 방법은 표정이나 억양으로 학습자의 실수를 수정해주거나, 혹은 문자로 이탤릭체, 혹은 대문자 등 조작하여 입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력강화 활동들로 입력 홍수(input flood),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 수정된 입력(corrective input) 활동이 있다.

첫째, 입력 홍수는 암시적인 입력강화 기법 중 하나이다. 목표 구문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제시 없이 반복적인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둘째, 텍스트 강화는 밑줄 긋기, 굵은 글씨, 이탤릭체, 대문자화, 색 부호화(color coding) 등으로 목표 언어의 입력 자료를 수정하여 입력홍수보다 명시적인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목표 언어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작된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의식을 상승시켜 학습자의 언어발달과 습득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입력은 올바른 형태의 입력을 강화하여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구문을 잘못된 문장으로 사전에 제시한 후, 취소선 긋기와 화살표 등으로 목표 언어의 입력 자료를 수정해주는 명시적인 방법이다.

입력 강화 활동이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H. Yang과 N. Y. Kang(2003)은 수동태 문법을 중심으로 입력 강화 활동 유형이 한국인 고등학교 학습자의 수동태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입력 강화 자료만 받은 통제 집단과, 입력 강화 자료를 받고 그룹별 토론을 거친 후 영작 과제에 대한 수정 피드백을 제공 받은 집단, 입력강화 자료를 이용한 그룹별 토론 후에 명시적 문법 교수를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수동태 학습에 있어 입력 강화 자료만 가지고 수동태 문법을 학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문법적 규칙 제시와 교사의 수정 피드백 제공이라는 입력 강화 활동을 병행한 학습은 수동태 문법 학습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집단별 상위 학습자와 하위 학습자에게 어떤 교수법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본 연구 결과에서는, 먼저 상위 학습자의 경우 명시적 문법 교수를 받은 실험 집단의 점수 향상도가 가장 높았고, 반면 하위 학습자의 경우 수정 피드백을 제공하여 암시적으로 교수한 실험 집단의 점수 향상도가 가장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H. S. Youm(2013)은 입력 홍수 및 텍스트 강화가 중학생의 영어 문법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험 처치로 입력 홍수와 텍스트 강화, 절충식 문법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모두 문법 학습 및 학습의 지속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텍스트 강화를 제공받은 집단이 문법학습에 있어 가장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텍스트 강화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특히 상위 학습자는 절충식 문법 설명과 텍스트 강화 기법과 같이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교수 방법이 효과적이었으며, 하위권 학습자는 텍스트 강화 뿐만 아니라 입력 홍수 기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암시적인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이며 연역적 지도 방법이 암시적, 귀납적 방법보다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암시적 활동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입력 강화 활동 중 텍스트 강화와 수정된 입력 방법이 과수동화 오류가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자동사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III. 실험

#### 1. 실험 참여자

모국어가 한국어인 성인 47명(평균 나이 만 26세)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모두 한국에서 9년 정도의 공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였다. 이들을 무작위로 입력강화 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 수정된 입력 집단 17명으로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총 47명 중, 사전 문법성 판단 검사에서 과수동화 오류를 보이지 않은 3명(각 집단별로 한 명씩)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입력강화 집단 14명, 통제 집단 14명, 수정된 입력 집단 16명의 결과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세 집단의 동질성 검사를 위해, 세 집단의 사전 문법성 판단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총점 12점 중, 입력 강화 집단의 평균 정답 수는 4.21개( $SD = 4.003$ ), 수정된 입력 집단의 평균 정답 수는 3.62개( $SD = 3.384$ ), 통제 집단의 평균 정답 수는 4.35개( $SD = 3.105$ )이었고, 일원 분산 분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2, 41) = 0.186, n.s.$ ). 즉, 실험 처치 전 세 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실험 자료

### 1) 문법성 판단 사전 검사

한국인 학습자들이 과수동화 오류를 자주 범하는 자동사 12개(*die, remain, appear, disappear, exist, occur, arrive, rise, fall, suffer, rest, survive*)를 선정하여 문법성 판단 사전 검사를 구성하였다. 문항은 피험자가 올바른 구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올바르게 않은 구문에는 바르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주관식 유형으로 구성하였다(전체 문항은 부록 1 참고). 12개의 자동사를 활용하여 과수동화 오류가 있는 목표 구문과 목표 구문과 상관없는 12개의 덤 문장(*filler sentences*)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목표 구문은 생물 주어(생물의 의미적 속성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포함)로 행위자(*agent*)를 나타냈다. 실험 참여자는 각각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표기한 뒤, 올바르게 않은 문장이 있다면 바른 문장으로 수정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사전 검사에서 활용한 문항의 예는 표 1과 같다.

**TABLE 1**  
Examples of Pretest

Grammar Test 1	
1. Her husband was died suddenly last week.	→ _____
2. I finds her lecture very obscure.	→ _____
3. Sam will be appeared in the earth tomorrow.	→ _____

### 2) 실험 처치

실험 처치 읽기 자료는 사전 검사에 활용한 12개의 자동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읽기 자료는 Nation(2009)의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Book 1*에서 발췌하였고, 12개의 목표 동사를 포함하기 위해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리고 자동사의 쓰임새에 집중하도록 각 동사가 쓰인 담화 내용을 이해했는지 측정하는 검사 문항으로 진위형 문항을 12개 제작하였다(읽기 자료 및 이해력 측정 검사 문항은 부록 2 참고). 이해력 검사 결과,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활동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2, 41) = 0.647, n.s.$ ).

읽기 자료에 실험 처치로, 입력 강화 활동지는 굵은 글씨(*boldfacing*)로 목표 구문을 표시하여 입력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피험자들이 목표 언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텍스트 입력 강화 방법이다. 수정된 입력 활동지는 피험자들이 범할 수 있는 과수동화 오류를 제시하고 피험자들이 오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어 가운데 취소선을 긋고 수정된 올바른 목표 구문을 제시하였다. 통제 집단 활동지에는 아무 조작없이 읽기 자료만 제시하였다. 세 가지 활동지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TABLE 2**  
Examples of Treatment Conditions

Treatment	Examples
Input enhancement	After she <b>died</b> , she became a ghost and <b>remained</b> in the community.
Corrective input	After she <del>was died</del> (died), she became a ghost and <del>was remained</del> (remained) in the community.
Control	After she died, she became a ghost and remained in the community.

### 3) 문법성 판단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목표 구문 11개와 덤 문장 12개, 총 23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목표 구문은 사전 검사와 실험 처치에 사용된 동사 중 *remain, exist, suffer, survive, rest, disappear* 여섯 개의 동사에 새로운 다섯 개의 자동사(*slip, happen, emerge, vanish, sink*)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전체 문항은 부록 3 참고). 새로운 동사를 추가한 이유는 실험 처치를 받고 난 후 새로운 자동사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3. 실험 절차

본 실험연구는 두 개의 실험집단과 하나의 통제 집단에 피험자들을 무작위로 배치한 후 3일에 걸쳐 매회 15분씩 진행하였다. 동일한 문법성 판단 사전 검사 활동지를 나눠준 후 문법적으로 정문인지 비문인지 판단하여 비문을 정문으로 수정하는 문제를 15분간 풀도록 하였다. 이튿날, 실험 처치로 각 세 종류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맞게 구성된 자료를 배부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독립변인을 조작하지 않은 내용의 활동지를 제공하였고, 두 종류의 실험 집단(입력강화 집단, 수정된 입력 집단)은 각각 텍스트 강화로 굵은 글씨로 구성된 입력강화 활동지와 오류 구문과 함께 목표 구문을 수정한 수정된 입력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각각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활동지를 읽고 진위형 문제를 15분간 풀었다. 다음날, 사후 검사를 위해 모든 피험자에게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된 문법성 판단검사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각 집단 별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문인지 혹은 비문인지 판단한 후 비문이 있다면 정문으로 수정하는 주관식 문제를 15분간 풀었다.

## 4. 분석 방법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목표 구문인 과수동화 오류가 있는 문장 23개(사전검사 12개, 사후 검사 11개)를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이 비문과 정문 판단을 올바르게 한 후, 바른 문장을 제시한 경우에 각 문항당 1점씩 부여하였다. 그러나 비문과 정문의 판단 여부가 올바르게 않거나, 혹은 비문과 정문의 판단 여부는 맞았으나 올바른 문장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후 검사에 새로 추가한 자동사 5개를 따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처치 과정에서 읽기 자료를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위형 문항 12개에 대해 각 문항당 1점씩 부여하여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검사의 세 종류의 집단(통제 집단, 입력강화 집단, 수정된 입력 집단)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 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은 .05로 각 집단에서 실시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 5.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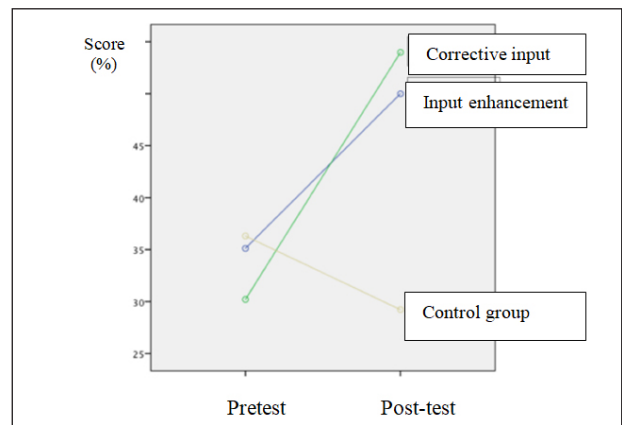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실험 처치의 영향으로 사후 검사에서 과수동화 오류를 찾아내어 옳게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Group	Pretest		Post-test		F value
	M(%)	SD	M(%)	SD	
Input enhancement	35.12	33.36	50.00	37.19	$F(1, 41) = 7.127^*$
Corrective input	30.21	28.20	53.98	36.74	
Control	36.31	25.86	29.22	31.73	

Note. \* $p < .05$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41) = 7.127, p < .05$ ). 집단간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F(2, 41) = 0.493, n.s.$ ),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41) = 5.436, p < .01$ ).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작용 효과는 통제 집단에 비해 입력 강화 집단과 수정된 입력 집단의 사후 검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문법성 판단 사후 검사에서 입력 강화 집단과 수정된 입력 집단이 향상된 점수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 Results of Pretest and Post-test

또한, 사후 검사에 새롭게 추가한 자동사에도 올바른 수동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추가한 자동사를 문항에 대한 각 집단별 사후 검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Novel Items in Post-test

Group	M	SD	F value
Input enhancement	2.64	2.24	$F(2, 41) = 2.838^*$
Corrective input	2.50	2.39	
Control	0.93	1.64	

Note. \* $p < .10$

일원분산분석 결과, 사후 검사에 새롭게 추가한 5개의 자동사(slip, happen, emerge, vanish, sink)에 실험 처치의 영향으로 올바르게 수동화 규칙을 적용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 41) = 2.838, p = .070$ ). 즉, 실험 처치가 새로운 동사에 올바른 규칙을 적용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형태 초점 활동으로 이루어진 실험 처치(입력강화, 수정된 입력)에 따라 한국인 성인 학습자의 과수동화 오류를 줄이는 문법 학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분석 결과로 통제 집단에 비해 입력 강화 집단과 수정된 입력 집단이 사후 문법성 판단 검사에서 향상된 점수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입력 강화 집단과 수정된 입력 집단이 목표 구문에 대한 의식을 높여 형태와 의미를 결합하여 올바른 자동사 구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후 검사의 향상된 점수는 실험 참여자가 과수동화 오류를 옳게 고쳐 쓰게 된 것을 보여주며, 이는 실

험 참여자들은 명시적 지식을 활용하여 올바른 규칙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사후 검사에 새롭게 추가한 자동사에 올바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입력 강화 집단과 수정된 입력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실험 처치를 통해 자동사의 규칙을 학습자들이 인지하게 되었지만, 그 규칙을 새로운 동사에 적용하는 효과는 통제 집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력강화 활동이나 수정된 입력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올바른 목표 구문을 주의 집중하고 인식하며 이해할 수 있으나, 새로운 동사에 일반화하기에는 활동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후 검사의 문항별 정오답 분석을 해보니, 실험 집단(입력강화 집단, 수정된 입력 집단)에서 사후 검사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사전검사서 오답 처리된 자동사와 동일한 동사이거나 다른 문장으로 구성된 문항의 정답률이 향상되었다. 특히,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동일한 자동사(remain, exist, suffer, survive, rest, disappear) 중 survive와 suffer 동사가 가장 큰 향상치를 보였다. 이는 'remain(남다)', 'exist(존재하다)', 'suffer(고통 받다)', 'survive(살아남다)', 'disappear(사라지다)', 'rest(쉬다)' 중 'suffer'는 한국어의 피동 형태소 '받다'와 유사하여 사전 검사에서 과수동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survive'의 경우는 한국어 의미의 영향이 클 수 있다. 한국어의 의미로 '여러 명 중 일부의 생명체가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서 남아 있게 되다'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피동형태소인 '되다'로 인한 모국어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 사전검사서 자동사에 수동화 규칙을 적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처치의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목표 구문에 대한 의식을 높였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서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어의 수동태 문법을 잘못 사용하는 한국인 성인학습자들이 실험 처치(입력강화, 수정된 입력)에 따라 명시적 지식을 활용하여 올바른 목표 구문의 자질을 습득하고 과수동화 오류를 감소할 수 있는 여부를 알아보려 했다. 실험 집단(입력강화, 수정된 입력)은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 처치의 영향으로 사후 검사에서 향상된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의미 중심 형태초점 활동으로 실험을 처치하였을 때, 한국인 성인학습자들이 명시적 지식을 활용하여 맥락 속에서 목표어의 입력 속에 포함된 특정 언어의 자질을 습득하였다. 따라서 두 종류의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피험자 스스로 규칙을 인식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자동사에 규칙을 일반화하는 데는 실험 처치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본 실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동태 문법 학습에 관한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의 유창성(fluency)뿐만 아니라 정확성(accuracy)를 갖춘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험 처치 내용과 같이 문맥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 목표 구문에 집중하여 올바른 구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학습자의 문법적 능력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자는 명시적인 지도와 더불어 수동태 규칙을 입력 강화 자료, 수정된 입력 자료, 입력 홍수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목표 구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실험연구는 피험자 대상으로 사전 문법성 판단검사 이후 교수적 도움 없이 실험 처치를 진행하였다. 만일, 처치와 함께 교수적 도움이 제공된다면 한국인 학습자는 목표 구문을 문맥 속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적인 자질을 습득함과 동시에 교수자의 도움으로 올바른 규칙을 함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본 연구의 피실험자의 수가 많지 않아서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더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미 중심의 형태초점 교수의 입력 자료와 함께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여 제 2언어 학습자들이 완전한 수동태 규칙을 습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rown, D., & Lee, Heekyeong. (201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Pearson.
- Croft, W. (1995). Modern syntactic typology. In M. Shibatani & T. Bynon (Eds.), *Approaches to language typology* (pp. 85-144). Oxford, UK: Clarendon Press.
- Eom, Hyeon-Suk. (2015). *Overpassivization errors of unaccusative verbs b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Hwang, Seon-Yoo. (2005). Evidence for input enhancement as a subtype of FonF. *Modern English Education*, 6(1), 18-38.
- Ju, Min Kyong. (2000). Overpassivization errors by second language learners: The effect of conceptualizable agents in discours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2(1), 85-111.
- Kim, Ji Eun, & Kim, Hee Sook. (2013).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overpassivization errors with English unaccusative verbs by Korean learner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2), 183-210.
- Kim, Joo-Hyun. (2016). A study on the overpassivization errors of intransitive verb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Tense and the morphological form.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8(1), 149-176.
- Larsen-Freeman, D. (2003). *Teaching language: From*

-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MA: Heinle & Heinle.
- Lee, Jin-Hwa. (2010). Overpassivization and overcausativization: Was it happened because someone happened it?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0(2), 389-410.
- Long, M. H. (1998).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 William & T. Bhatia (Eds.), *Handbook of language acquisition. Vol. 2: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413-468). New York: Academic Press.
- Long, M., & Robinson, P. (1998). Focus on form: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C. Doughty & J. Williams (Eds.),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5-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ntrul, S. (1997). *Transitivity alternation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crosslinguistic study of English, Spanish, and Turk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 Mortazavi, M. (2012). Overpassivization of unaccusatives in ESL: Effects from tense and have. *The EFL Journal*, 3(1), 33-45.
- Nation, P. (2009).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1*. New York: Compass Publishing.
- No, Gyeonghee, & Chung, Taegoo. (2006). Multiple effects and the learnability of English unaccusatives. *English Teaching*, 61(1), 19 -39.
- Oshita, H. (1997). *"The unaccusative trap": L2 acquisition of English intransitive verb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 Schmidt, R. (1993). Awarenes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3, 206-226.
- Shin, Jeong-Ah. (2011). Overpassivization errors in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writing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7(3), 255-273.
- Yang, Heisoon, & Kang, Na Yeon. (2003). The effect of input enhancement activity in the teaching of English passive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assive structure learning and its use.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7(3), 189-208.
- Youm, Hye-Sun. (2013). *The effects of input flood and textual enhance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grammar learning and affective doma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Zobl, H. (1989). Canonical structures and ergativity. In S. M. Gass & J.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03-2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1**  
문법성 판단 사전 검사

**Q. Indicate whether each sentence below is acceptable (A) or not. If a form is not acceptable (U), correct it with an appropriate form.**

For example: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A → N/A

She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U → She wants to ~.

- 1 Her husband was died suddenly last week. \_\_\_\_\_  
→ \_\_\_\_\_
- 2 I finds her lecture very obscure. \_\_\_\_\_  
→ \_\_\_\_\_
- 3 Sam will be appeared in the earth tomorrow. \_\_\_\_\_  
→ \_\_\_\_\_
- 4 She have prepared a very elaborate meal. \_\_\_\_\_  
→ \_\_\_\_\_
- 5 A vampire was existed in my town. \_\_\_\_\_  
→ \_\_\_\_\_
- 6 I wanted to be a social worker tomorrow. \_\_\_\_\_  
→ \_\_\_\_\_
- 7 We weren't arrived back at the hotel until very late. \_\_\_\_\_  
→ \_\_\_\_\_
- 8 She make some explicit references to my personal life. \_\_\_\_\_  
→ \_\_\_\_\_
- 9 He was fallen 20 metres onto the rocks below. \_\_\_\_\_  
→ \_\_\_\_\_
- 10 They has rendered assistance to the disaster victims. \_\_\_\_\_  
→ \_\_\_\_\_
- 11 He was suffered a massive heart attack. \_\_\_\_\_  
→ \_\_\_\_\_
- 12 I have never contemplated living abroad tomorrow. \_\_\_\_\_  
→ \_\_\_\_\_
- 13 They were remained in Mexico until June. \_\_\_\_\_  
→ \_\_\_\_\_
- 14 I apologized for the trouble again today. \_\_\_\_\_  
→ \_\_\_\_\_
- 15 He would be disappeared for weeks on end. \_\_\_\_\_  
→ \_\_\_\_\_
- 16 I follows the instructions correctly. \_\_\_\_\_  
→ \_\_\_\_\_
- 17 Black sheep were occurred in every family. \_\_\_\_\_  
→ \_\_\_\_\_
- 18 She cannot makes the paper stars. \_\_\_\_\_  
→ \_\_\_\_\_
- 19 She was suddenly risen to her feet yesterday. \_\_\_\_\_  
→ \_\_\_\_\_
- 20 I need contacts that could helping in finding a job. \_\_\_\_\_  
→ \_\_\_\_\_
- 21 He can be rested easy knowing that she's safely home. \_\_\_\_\_  
→ \_\_\_\_\_
- 22 We will assisted you in finding somewhere to live. \_\_\_\_\_  
→ \_\_\_\_\_
- 23 I will be survived sure as I am alive. \_\_\_\_\_  
→ \_\_\_\_\_
- 24 We developing a coordinated approach to the problem. \_\_\_\_\_  
→ \_\_\_\_\_

**부록 2**  
읽기 자료 및 이해력 측정 검사지

**Reading Test**

A nice woman lived by a large river. She loved children. And she liked to stand outside the playground, watching children playing football. She always wanted to help them in any way she could. She loved her community, and everyone in the community loved her. Her habit was to sit and hang out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every day. She lived for a very long time and became very wise. After she died, she became a ghost and remained in the community. Every night, she carefully appeared in the community, then disappeared before the morning because she wanted to help children, not to frighten them. People got to know that a ghost existed in their community. Although she was a good one, she had a scary voice, so children were afraid of her. She only scared them to help them. One evening, an accident occurred. Some children and a dog went to the river far from their home. When they arrived there, it started raining. The children needed to go north to get back home, but they didn't know which direction it was. When the moon rose in the sky, they saw a ghost by the river. The ghost said, "Go away!" The children felt scared. They knew it was a ghost. The ghost came to them closer and yelled again, "Go away!" Some children fell and some began to cry. The children knew they only had one choice. They did not want to suffer from this scary voice in the dark. The children ran a long distance away. The voice of the ghost followed them all the way. Finally, the children reached home and safely rested with their parents. The ghost was very happy to have guided the children safely back to their home because she knew that the river would have overflowed soon and that it would have been very dangerous for the children to stay there. As a result, the ghost helped the children survive!

		True	False
1	A nice woman died, and then came back as a ghost.		
2	After she became a ghost, she remained in the river.		
3	Every morning, a ghost appeared in the community.		
4	She disappeared after the night.		
5	People in the community knew that a ghost existed.		
6	An accident occurred in the morning.		
7	It was raining when children arrived near the river.		
8	When the sun rose, children looked at a ghost by the river.		
9	All of children fell and then started crying.		
10	Children would like to suffer from the ghost's voice.		
11	Children could go back home and then rest with their parents.		
12	The ghost intended to help the kids survive.		

부록 3  
문법성 판단 사후 검사

Grammar Test 2

**Q. Indicate whether each sentence below is acceptable (A) or not. If a form is not acceptable (U), correct it with an appropriate form.**

For example: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A → N/A

She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U → She wants to ~.

- 1 We doesn't educate him very well. \_\_\_\_\_  
→ \_\_\_\_\_
- 2 They were remained in Mexico until June. \_\_\_\_\_  
→ \_\_\_\_\_
- 3 Our cat produces kittens last week. \_\_\_\_\_  
→ \_\_\_\_\_
- 4 All of animals have been existed on the Earth. \_\_\_\_\_  
→ \_\_\_\_\_
- 5 Ann persuaded to be written on that topic. \_\_\_\_\_  
→ \_\_\_\_\_
- 6 I am suffered from an ache in my left ear. \_\_\_\_\_  
→ \_\_\_\_\_
- 7 Megan were wanted by Barbara to feed the dog. \_\_\_\_\_  
→ \_\_\_\_\_
- 8 I can be survived thanks to my mother. \_\_\_\_\_  
→ \_\_\_\_\_
- 9 There wants to be fried squid at the reception. \_\_\_\_\_  
→ \_\_\_\_\_
- 10 I can be rested because of the fact that she's safely home. \_\_\_\_\_  
→ \_\_\_\_\_
- 11 There would prefer to be a unicorn in the garden. \_\_\_\_\_  
→ \_\_\_\_\_
- 12 The child was disappeared from his home. \_\_\_\_\_  
→ \_\_\_\_\_
- 13 He wants watching television. \_\_\_\_\_  
→ \_\_\_\_\_
- 14 The child was slipped from his grasp and ran off. \_\_\_\_\_  
→ \_\_\_\_\_
- 15 He wants that he will watch movie. \_\_\_\_\_  
→ \_\_\_\_\_
- 16 You were not happened to know his name. \_\_\_\_\_  
→ \_\_\_\_\_
- 17 She enjoys to watch a play. \_\_\_\_\_  
→ \_\_\_\_\_
- 18 We were emerged into bright sunlight. \_\_\_\_\_  
→ \_\_\_\_\_
- 19 He thinks to watch television. \_\_\_\_\_  
→ \_\_\_\_\_
- 20 He was vanished without a trace yesterday. \_\_\_\_\_  
→ \_\_\_\_\_
- 21 Barnett persuaded to examine Tilman. \_\_\_\_\_  
→ \_\_\_\_\_
- 22 My mother underwent a major surgery last year. \_\_\_\_\_  
→ \_\_\_\_\_
- 23 We have saw him resisting the policeman. \_\_\_\_\_  
→ \_\_\_\_\_
- 24 I was sunk through the floor yesterday. \_\_\_\_\_  
→ \_\_\_\_\_